



## “항산항심(恒産恒心)의 자세로 제2의 도약 원년이 되어야”

박구원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 한국전력기술 입사(76)
-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응역 사업 책임자
- KEDO원전 종합설계응역 사업책임자
- 원자력사업단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개발본부 기술고문
- 포스코건설 원자력고문 역임
- 한국전력기술(주) 사장(2013~)

친애하는 한기가족 여러분.  
의욕과 보람으로 땀 흘려 일했던 을미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기가족 모두에게 밝은 웃음과 축복이 가득한 건강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영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창립 40주년과 함께 희망의 김천 시대를 개막하고, 기술 혁신과 내실 강화, 노사 화합 등 전례 없는 성과를 이룩해낸 한기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과 아프리카의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해외 현장, 그리고 영광, 울진, 월성, 고리, 오산 등 국내 현장에서 불철주야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한기가족 여러분과 협력사 직원 여러분께도 안전과 건강의 염원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 내실 경영, 기술 혁신, 사업 수행 역량 강화

한기가족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고 있는 경제 위기의 파고(波高)가 간단치 않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표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현상은 공급 과잉 수요 부족 현상의 만성화 조짐과 함께 더욱 좁아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준의 산업 구조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며, 소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처방과 함께 신사업 개발, 산업 구조 개편



한국전력기술 김천 신사옥 전경

및 기업 구조 조정 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만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비록 각종 경제지표와 전망이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악조건이 없으면 극복과 성장의 기회도 없습니다.

많은 위대한 기업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역경을 성공의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경제의 미래 예측은 현상의 변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낙관도 비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기는 수익성 확보와 리스크(Risk) 관리 등 내실 경영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혁신과 사업 수행 역량 강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합니다.

##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기업문화

한기가족 여러분.

2016년은 화합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법적 흑백 논리와 경직된 단순 논리가 아니라,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각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고로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경영 환경의 변화는 어느 기업에게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는 법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변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기업은 기회를 얻게 되며, 정세 변화에 둔감한 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수동적 입장에서 마지못해 끌려 다니는 기업은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제까지 성공가도를 달렸던 기업일지라도 화합



과 진취적 기상을 잃으면 그로써 쇠망하고 마는 것이 냉엄한 경쟁의 법칙입니다.

경제적 환경과 여건이 우리 한기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발전적으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뭉친 한기인 모두의 창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기술 역량 · 자원 효율적 사용, 창조적 재구성

한기가족 여러분

2016년은 항산항심(恒産恒心)의 자세로 제2의 도약을 향한 원년(元年)이 되어야 합니다.

상장(上場) 공기기업으로서 한기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과 창출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공기업을 놓고 국민과 시장은 그 역할과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기의 경제적 성과 창출은 당연히 우리의 안정된 고용과 삶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경제적 성과, 즉 항산(恒産)을 갖추면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어, 긍정적이고 안정된 마음, 즉, 항심(恒心)을 갖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어렵고 복잡한 여건 하에서도 기술 자립과 세계 최고의 기업을 향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한기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국내의 환경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참을성만 있다면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제2도약을 단행해야 하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배전의 노력, 배전의 지혜, 배전의 창조와 혁신 역량 없이는 도약은 고사하고

지속성도 확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한기인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나 방관자 없이 한 덩어리의 바위가 되어 한기의 기술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적으로 새롭게 재구성해냄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제2의 도약을 만들어 갑시다.

### 지역 사회의 책임있는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 견인

한기가족 여러분

김천 시대의 개막은 이전에 우리가 인식하여 왔던 것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기의 이전으로 지역 경제는 유례없는 활기와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기인의 사고와 생활 방식은 지역 사회의 큰 줄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리더(Leader)로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기는 지역 사회의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창조와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해가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안으로는 지역 경제와 문화를 선도한다는 고도의 윤리적 사명감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천간(天干)인 병(丙)은 씨앗이 줄기를 곧게 뻗는 모습이며, 부귀와 영광의 상징인 붉은 색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2016년은 영특함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붉은 원숭이가 힘차게 뻗어나간다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가족 여러분

항상 즐거움과 보람이 묻어나는 가운데 역동적인 변화를 슬기롭게 맞이해가는 2016년을 기원합니다. ☪